

산업기술정보원
사내 정보시스템 개발

산업기술정보원(원장 : 박홍식)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내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産技院은 각 회사들이 PC(개인용컴퓨터)를 이용, 독자적으로 산업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사내기술정보관리시스템(TIMS)을 개발, 다음달부터 공급한다.

産技院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허 및 시장 정보 등을 기술별로 재구성, 일괄공급할 계획이다. 국내의 산업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신속한 정보제공도 할 계획이다.

(주)금성사
퍼지 고화질 보상
VCR 시판

(주)금성사(대표 : 이현조)가 퍼지 고화질 보상회로를 채용한 신형 VCR를 개발 시판한다.

이 제품(GHV-0505)은 퍼지 고화질보상 마이컴을 내장, 과다사용으로 화질이 떨어지는 비디오테이프도 보다 깨끗하게 재생시켜 주며 VCR본체에는 물론 리모콘에도 조그셔틀기능을 채용, 32분의 1배의 느린재생에서 27배속 고속 탐색까지 다양한 속도로 원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주)금성사
가정용 PC
<마이티 386H>출시

동사는 그래픽 소프트웨어인 <윈도 3.0> 환경 아래에서 개발된 가정용 소프트웨어 50여 종을 탑재한 32비트급 가정용 PC<마이티386H>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

동사의 <마이티386H>는 키보드에 의한 명령어의 입력 없이 마우스만을 이용해 전원을 켜면 모든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 국민학생을 비롯, 주부들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마이티386H>는 8개의 프로그램 관리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는데, 직장인을 위한 '전자수첩' 가계부·요리백과·육아정보 등 주부를 위한 '현모양처', 수업시간표, 생활계획표 등 자녀를 위한 '몽당연필', 등산, 낚시, 게임 등 여가생활을 위한 '취미생활'과 '가족오락관', 해몽·토정비결 등을 알아보는 '만사형통', 바른예절을 익힐 수 있는 '예절생활',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컴퓨터교실' 등 가정에서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갖추고 있다.



(주)금성사
美社에 타자기
특허권 판매

동사는 국내 전자업체로는 처음으로 외국업체에 특허권을 팔았다. 전자식 타자기제품과 관련, 보유하고 있는 「한글인자방식」 특허권을 미국의 렉스마크社에 판매키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국내전자업체는 지금까지 주로 기술도입계약이나 크로스라이선스(특허상호교류)계약 등을 통해 연간 1,000억원(반도체 제외) 정도의 로열티를 일방적으로 외국에 지불해왔다. 금성사는 렉스마크사가 오는 '93년 10월까지 이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수만달러를 일시불로 받게되며 그밖에 금성사가 보유하고 있는 타자기 관련 등록 특허 100여건에 대해서도 사용정도에 따라 일정액의 로열티를 징수키로 양사가 합의했다.

금성기전(주)
對 고객 서비스 강화

동사는 최근 고객과 밀접한 위치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룹 경영이념인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를 실현하기 위해 PLC, 응용전자기기, 고압기기 등에 대한 기술상담은 물론, 신기술·신제품 정보의 제공과 신속한 애프터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게 될 "금성기전 서비스센터"를 구로구 고척동 공구단지내에 개설했다.

PLC, 공압기기 등은 그 특성상 생산설비 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신속한 고장수리가 필요한데 금성기전 서비스센터는 각종 시험설비와 부품은 모든 수리가 가능하며 서울·경인 지역은 고장접수후 3일 이내에 완전수리하고 그외 지방은 각 지방영업소에서 1차수리후 수리가 안되는 제품은 이 센터에서 완전수리하게 된다.

특히, 사전 서비스를 위해 순회점검 계획도 수립하여 현장에서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적합한 용량의 기종 선택 상담, 고객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상담 등의 역할도 맡는다.

금성마이크로닉스(주)
새도마스크 개발

금성마이크로닉스(주) (대표 : 조희재)가 TV수요 대형화추세에 맞춰 25인치용 새도마스크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동사는 또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기존 TV 브라운관용 새도마스크외에 수요가 늘고있는 공업용 브라운관(CDT)에 쓰이는 새도마스크 생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동사는 일본 도시바社 타입 25인치 컬러TV 브라운관(CPT)용 새도마스크 개발에 성공, 현재 대우그룹계열 CPT업체인 오리온전기에 규격 및 성능시험을 의뢰중이라고 밝혔다.

**금성산전(주)
인공지능
교통신호제어기 개발**

금성산전(대표 : 이회중)은 최근 국내 특유의 도로사정에 적합한 인공지능형 교통신호제어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신호제어기분야에서 일대 기술혁신을 이루는 한편 원활한 교통소통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교통신호제어기는 교통량을 측정하여 교차로 신호 등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금성산전연구소에서는 그동안 교통관제시스템 및 전자감응식 교통신호제어기 등을 개발해 대구 및 인천 등지에 공급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약 1년간에 걸쳐 3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국내 교통여건에 적합한 인공지능형 교통신호제어기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인공지능형 교통신호제어기는 전자감응식에 비해 고도의 기능을 갖고 있어 교통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금성정보통신(주)
화상정보시스템 개발**

금성정보통신(주) 대표 : 정장호)은 퍼스컴을 통해 문자 및 화상정보를 입력, 관리하고 이 정보를 공중통신망(PSIN), 공중데이터통신(PSDN), 근거리통신망(LAN), 광역통신망(WAN) 등 각종 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검색할 수 있는 화상정보시스템(Goldstar Image-Net)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문자 및 화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로 △캠코더(비디오카메라), TV 등 입력장비의 신호를 데이터신호로 바꾸어 퍼스컴에 저장하는 멀티메이커 △퍼스컴용 화상 DB프로그램인 이미지뱅크 △각종 통신망을 통해 화상정보를 제공하는 이미지 네트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은 IBM퍼스컴 호환기종에 사용할 수 있어 풍부한 확장성을 갖는 한국형 프로그램이다.

또 강력한 데이터 압축기능을 사용, 대용량의 화상 및 문자정보처리가 신속하며 화면이 깨끗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성정보통신(주)
서울대, 전화망 활용
원격 강의 시스템 공급**

금성정보통신(주) (사장 : 정장호)은 전화망을 이용, 영상 음성 데이터 등을 전송해 산업현장에서 TV모니터로 강의 받을 수 있는 원격 강의시스템을 서울대에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제규격의 전송방식인 H261을 채택, 국제적 호환성을 가져 다른나라 대학과도 원격강의가 가능하고 1개의 모니터에 화면을 분리해서 나타낼 수 있어 강의효과를 높일 수 있다.

금성통신(주)
무선기사업 본격화

금성통신(주) (대표: 백중영)은 이달 6일 220MHz대역의 간이/업무용 무선기를 각각 1개모델씩 (모델명: [간이용]VS-220C, [업무용]VS-2200C)를 개발완료하고, 시판에 들어간다.

동사의 무선기는 국내 초경량, 초소형 타입으로 220MHz대역을 사용함으로써 기존포화에 이른 150MHz대역의 향후 대체품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CTCSS(Continuous Tone Code Squelch System: 혼신감소회로)방식을 채택, 혼신 및 잡음을 극소화했으며, 원거리 및 근거리통신시 송신출력전환기능, 4개의 채널선택기능 및 고휘도 LED를 사용, 송신 및 배터리상태의 식별이 용이하다.

동사의 VS-220C/2200C는 '91년 6월 금성전기와 합병한 이래 처음 출시하는 제품으로써 향후 동사는 무선기 사업을 중점사업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성통신(주)
자동 재다이얼
전화기 개발

(주)금성통신이 자동후크 재다이얼기능을 갖춘 보급형 유선전화기 GS5410을 개발, 이달 중 시판에 들어간다.

이 모델은 상대방과 통화시 후킹없이 자동으로 재다이얼이 가능하고 기계식교환기 가입자도 전자식 기능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동성반도체(주)
다이오드 수출 다변화

동성반도체(주)는 미국에 현지 판매법인인 LA東星아메리카社를 6월께 설립, 미국과 브라질 등 남미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키로 했다.

동성이 오이팍社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 산업용 다이오드의 수출을 꾀하는 한편 일반 저가 다이오드의 현지생산도 추진키로 했다.

다이오드는 교류전류를 직류로 바꾸는 반도체 부품으로 현재 고압·대전력 다이오드의 경우 한국 일본, 독일만이 생산하고 있다.

동성은 국내 처음으로 3천V급 산업다이오드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유럽의 최대 다이오드 업체인 오이팍社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앞으로 10년간 매년 4천만개의 다이오드를 OEM 공급키로 했다.

동양정보통신(주)
매직 VAN 구축

동양정보통신(주)는 본사와 대리점간의 VAN(부가가치통신망)을 구축한다.

동양은 본사와 호스트컴퓨터에 대리점PC(개인용 컴퓨터)를 연결하는 매직VAN을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사는 이를 위해 현재 시범운영중인 5개 대리점의 운영실태를 점검, 올해안에 40개 대리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양은 대리점 VAN체제가 구축되면 효율적인 고객 및 재고관리, 매출이익분석, 소비자 동양분석 등이 가능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슨전자(주)
휴대전화기 사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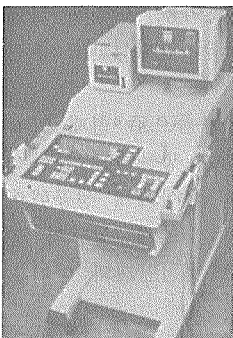
맥슨전자(주)(대표: 윤원영)는 최근 해외 현지출자법인인 맥슨USA 및 맥슨 유럽과 공동으로 휴대전화기 개발을 추진, 빠르면 올해 하반기경부터 본격적인 제품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휴대전화기를 자체개발, 생산하는 업체는 금성통신 삼성전자와 함께 3개업체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70만달러 정도가 투자되는 맥슨전자의 휴대전화기 개발사업은 맥슨전자와 맥슨USA가 맥슨유럽에 연구인력을 파견, 맥슨유럽이 주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개발중인 휴대전화기는 현재 북미지역과 우리나라에서 사용중인 AMPS방식을 비롯, 유럽에서 사용하는 ETACS, GSM방식 등 3가지 타입이며 제품의 생산은 맥슨전자의 청주공장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메디슨
초음파 진단기 판매
美·獨에 합작사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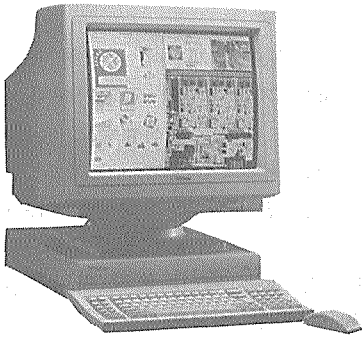


(주)메디슨(대표: 이민화)은 최근 미국과 독일 등 2개지역에 초음파진단기 판매 전문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현지 합작파트너인 美 서커디언社 및 獨 로지콘社와 각각 합작계약을 체결했다.

동사는 미국을 비롯한 북미 및 남미지역의 판매와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美 서커디언社와 합작으로 50만달러를 투자, 샌프란시스코에 메디슨아메리카社를 설립한데 이어 독일의 초음파 영상진단기 연구개발업체인 로지콘社와 합작으로 30만달러를 투자, 메디슨유럽社를 뒤셀도르프에 설립,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유럽지역의 판매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연구개발 협력도 강화, 3차원 초음파영상진단기의 개발 등 신상품의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슨은 합작사의 설립을 계기로 이들 두지역에 향후 3년간 총 7천만달러상당의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삼보컴퓨터
포항공대, 연구소에 국산
워크스테이션 10대 기증



(주)삼보컴퓨터(대표:김종길)는 국산 워크스테이션 최신 모델 TG Station SDT-400 10대(시가 1억여원)을 포항공대 부설 정보산업 대학원 정보통신연구소에 기증하였다. 동사에 따르면 이번 국산워크스테이션 기증은 산학협동을 이룬다는 정보통신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따라 산학간의 유대를 더욱더 결속시키고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환경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기증한 워크스테이션은 각 산업체로부터 위탁교육을 받는 정보산업 종사자 및 정보산업 대학원생의 교육 및 실습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동사의 SDT-400은 40MHz의 강력한 처리 속도로 SUN SPARC 도는 기종과 하드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통신으로 타 기종과 접속이 용이 할뿐만 아니라 SUN OS 및 오픈윈도우를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국산 워크스테이션으로 그동안 수출을 해왔으며, 3월부터 내수 판매를 하기 시작한 신제품이라 더욱 의의가 크다.

이번 워크스테이션 설치를 계기로 정보통신연구소에서는 동사에서 기증한 SDT-400기종 10대를 포함하여 총 20대를 설치,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삼보컴퓨터
제2의 이동통신사업 참여
정보통신 사업범위 확대

(주)삼보컴퓨터(대표이사:김종길)는 제2 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동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이동통신분야의 사업참여를 검토하여 왔고 전담팀을 결성, 이미 사업추진계획을 완료했다고 한다.

Computer & Communication 분야의 축적된 Know-How를 활용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참여할 수 있는 Pager로 시작하여 PCN(Personal Communication Networking)까지 사업범위를 확장하였으며, 무선통신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전자업체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Pager와 컴퓨터통신을 결합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 등 여러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주)
초소형 노트북 PC발표

정보기기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삼성물산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인 노트북 컴퓨터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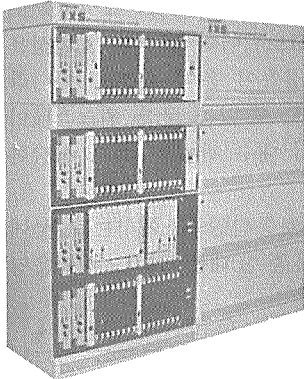
동사는 기존 노트북의 기능을 완전히 갖추면서 팜톱보다는 약간 큰 A5사이즈의 노트북을 영국 현지법인을 통해 선보였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의 신제품은 크기가 223×161×30.9mm이고 기존 데스크톱과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호환성을 위해 외장형 플로피디스크드라이

브, 각종 유틸리티용 카드가 선택사양으로 제공된다.

동사는 자사와 볼텍 브랜드로 판매되는 신제품이 286급으로 주기억용량 2MB에 최대 4MB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저전력 소비를 겨냥한 각종 유틸리티시스템이 기본 내장돼 일반 노트북보다 작동시간이 두배나 긴 4시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주)
차세대형 ISDN
사설교환기 개발



동사의 정보통신부문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한 ISDN 사설교환기(모델명 : INFOREX-15000)는 지금까지의 교환기에서 구현할 수 없었던 ISDN 서비스를 구현함은 물론, 회선용량도 국설교환기와 맞먹는 1만 5,000 회선에 이른다.

또 중용량에서 대용량까지 확장에 필요한 고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어 외국 도입 기종보다도 한 차원 높은 차세대형 정보교환기다.

ISDN 사설교환기는 지금까지의 음성 또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그래픽 등의 정지화상 또는 동(動)화상 정보까지도 복합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 고용량의 회선 능력을 구비하고 있고 시스템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지능빌딩, 대단위 공장단지, 원거리 사업장 등에서 고도의 정보처리를 위한 교환센터로 사용된다.

삼성전자(주)
HDD 다중시험장비 국산화

삼성전자(주) 정보통신부문(사장 : 정용문)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다중시험장비 국산화에 성공했다.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 다중 시험장비는 컴퓨터 HDD 생산과정의 각 공정에서 성능을 판별하고 합격 여부를 자동적으로 확인하는 장비인데, 동사가 개발한 장비로는 동시에 HDD 30대를 테스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HDD 생산업체들은 HDD 생산을 위해 필요한 다중시험장비를 전량 미국에서 수입해 사용해왔다.

동사의 HDD 다중시험장비 국산화에 따라 HDD 생산업체의 성능 시험 설비투자를 60%까지 절감할 수 있고, 따라서 향후 HDD의 가격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도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삼성전자(주) 자동절단기능의 저가 Fax 개발, 시판

삼성전자(주) 정보통신부문(사장 : 정용문)은 최근 Auto Cut 기능을 가지면서도 낮은 가격의 팩시밀리(모델명 : COFAX-2000)를 개발했다.

그동안 Auto Cut 기능은 고가제품에만 적용되고, 저가형 제품은 수신된 기록용지를 직접 손으로 잘라야 하는 수동CUT 방식이었다.

수신지 절취 방식은 팩시밀리의 가격과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삼성전자는 저가형 팩시밀리인 COFAX-2000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본장착시켰다. 따라서 수신된 기록지를 손으로 찢다가 문서가 파손되는 불편을 없앴다.

COFAX-2000에는 해외교신지 보다 정확한 통신을 위해 별도의 해외교신 기능을 내장시켰기 때문에 해외교신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외교신에서 자주 발생하는 에러를 방지하고 정확한 송수신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도움말 기능을 국내 처음으로 적용시켜 팩시밀리 조작중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도움말 버튼을 누르면 조작요령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된 도움말이 자동으로 프린트된다.

소규모 사무실을 주 대상으로 개발된 COFAX-2000 팩시밀리는 Fax/Tel 자동전화기능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전화선을 쓰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전화를 했을 경우 전화기 벨이 울리고, 상대방이 FAX로 전화했을 때는 자동으로 FAX를 수신하는 상태로 바뀌는 자동인식을 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삼성전관(주) 신기종 OCR 개발

삼성전관(주) (대표 : 박경팔)이 A4사이즈 전표를 분당 50장까지 처리할 수 있는 광학문자판독기(OCR)를 개발, 하반기부터 공급에 나선다.

동사는 量産을 추진중인 신기종OCR(모델명 : N6370R70)가 필기체 한글인식기능을 갖춰 각종 전표를 신속하게 판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영전자공업(주) 부설연구소 대폭 확장

삼영전자공업(주) (대표 : 변동준)가 신규사업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와 사전서비스 체제강화를 위해 부설연구소를 대폭 확장한다.

동사는 성남 2공단에 제2공장의 증설을 계기로 이 공장내에 900평 정도의 연구동을 세워 현 200평정도인 연구소 규모를 대폭 늘리고 연구인력도 금년말까지 60명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또 연구소 조직도 개편, 기존 4개 연구개발실외에 신규프로젝트를 전담할 3~4개의 팀을 신설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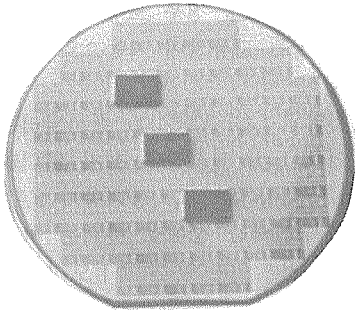
새한미디어(주)
공장기술연구소 개설

새한미디어(주)(대표: 이재관)가 기술연구소와 기획조사실을 신설하는 등 일부조직을 개편한다.

동사는 올해부터 신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이를 지원할 기획·연구개발부서를 확대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충주공장의 기술개발과를 확대 개편, 충주공장기술연구소(소장 신영우 충주공장 공장장)로 명칭을 바꾸고 이달초 현판식도 가질 예정이다.

현대전자산업(주)
자동차 오디오용
DTS칩 개발



현대전자산업(주)가 자동차용 오디오의 방송채널선택 및 주변회로 동작제어에 쓰이는 DTS(디지털튜닝시스템)칩을 개발, 하반기부터 양산에 나선다.

현대는 DTS칩이 4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활용, 방송選局은 물론 LCD(액정표시장치)드라이버 및 테이프 데크 등 주변회로와의 접속을 위한 입출력기능을 갖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 칩의 국산화로 연간 2백 50만달러의 수입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오디오생산업체들은 그동안 DTS칩을 일본NEC와 도시바 등에서 수입, 오디오 부품으로 써왔다.

홍창물산(주)
독일에 계측기
판매법인 설립

홍창물산(주)(대표: 손정수)은 EC통합에 대비한 해외판매망 확충을 위해 독일에 유럽현지법인을 설립했다.

또 부품다각화의 일환으로 TDX(全電子교환기)의 부품사업에도 진출했다.

동사는 유럽시장통합에 대비하고 이 지역에 대한 계측기 수출확대를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 슈바벤하임에 총자본금 50만마르크를 단독출자한 현지 판매법인인 홍창일렉트로니카유럽을 설립, 본격적인 판촉활동에 나섰다.

독일 현지법인은 앞으로 유럽전지역에 대한 계측기를 비롯 인공위성수신기의 공급을 맡게되는데 내년중 자본금을 증액, 사업확장을 꾀할 방침이다.